

“우즈베크 불교유적 발굴 동참을”

하즐위원장,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예방·요청

중앙아시아는 인도불교가 천산 중로를 통해 중국에 전래될 즈음, 화엄경과 법화경이 결집되었을 정도로 불연이 깊은 땅이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인 우즈베크스탄의 종교장관이 조계종에 중앙아시아 불교유적 발굴작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즈베크스탄 대통령 직속 종교위원회 씨비로즈 하즐 존 위원장(장관급)은 5월 27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예방해, 한국 불교계가 우즈베크스탄 불교유적에 대한 발굴 및 보전작업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하즐 위원장은 또 “이슬람국가인 우즈베크스탄에서 불교가 국교의 하나로 공인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즈베크스탄의 불교 문화재 복원 등을 통해 현지 불교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영 포교원장 스님은 “양국의 이슬람과 불교의 교류를 통해 지구촌의 평화



우즈베크스탄 씨비로즈 하즐 존 종교위원장은 5월 27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예방, 우즈베크스탄 불교유적 발굴에 협조를 요청했다. 왼쪽부터 도영스님, 하즐 위원장과 부인 씨비로즈 달 비르세.

중진시키자”며 28만 고려인의 권익 증진과 불교 지원을 당부했다. 우즈베크스탄의 유일한 한국 사찰인 자은사와 심원사 주지 도후스님, 건봉사 주지 영도스님의 초청으로 이뤄진 하즐 장관의 이번 한국방문

은, 우즈베크스탄 불교유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의불교 담당=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소도시 벡트리아(Bactria)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구성된 다국적 조사단의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지금까지 이슬람교의 성지로만 알려진 벡트리아에서 조사단이 발견한 불교유적은 이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기동 모양의 흙무덤들로, 1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작은 불상을 봉인한 밀실과 탑 등이다. 하즐 장관의 이번 방문은 다른 불교유적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한국 불교계에 요청, 한국의 자본으로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즈베크스탄의 불교유적이 분포한 곳은 벡트리아, 페르가나, 수한다리아, 시마르칸드, 지카, 안디자 지역 등 6곳. 이중 벡트리아와 수한다리아 지역은 일본이 발굴중에 있으며, 한국계 사찰인 자은사구 자광사는 지카 지역의 발굴권을 얻어냈다.

이와 관련 우즈베크스탄에서 지난 해 말 최초의 불교법으로 등록된 자은사 주지 양기훈 법사는 “본국 불교계의 지원을 받아 자카지역의 불교유적 발굴사업에 나서서 동 중앙아시아 불교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불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차실라 나싱 홀’ 병원 카루나 키르티 원장 인술로 卍불교 중흥 이끌어

인도 비하르주 수도 파트나에 있는 ‘판차실라 나싱 홀’(Panchasila Nursing Home)의 원장인 카루나 키르티 원장(Dr. Bhikku Karuna Kirti, 50, 안과전문)은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시술을 베풀고, 비하르주의 불교중흥을 이끌고 있다. 부인 서스닐라 카루나키르티 박사(Dr. Susnila Karunakar, 49)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년 부처님 오신날에 보드 가야 대탑에서 일본 출신의 인도 스님인 슈리사사리(Ariyanasarjuna Suree Shrestha) 스님으로부터 수계받기도 했다. 카루나 키르티 원장은 1972년부터 병

열달전 길에서 다 죽어 가는 사람을 데려와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또한 불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호텔에서 묵지 않고 여기서 묵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파트나의 시내 시장 통 한가운데 위치한 이 병원에서 비하르의 불교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다. 부처님 뜻에 따라 매주 수요일에는 무료 진료를 하는데 어떤 날은 50명씩 오기도 한다.

키르티 원장은 주로 마을에 진료를 다니거나 불교 일을 한다. 수계식을 하러 다니기도 하며, 매달 소식지 1,000권을 펴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3,500루피 가량의 예산이 든다. 나그

부처님 뜻따라 매주 수요일 무료 진료 불교서적 인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포



판차실라 나싱 홀의 카루나키르티 원장은 매주 수요일 무료로 환자를 치료한다.

원 일을 했는데, 지금의 병원은 1층과 2층에 각각 7개의 환자실, 3층은 주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현재 50만 루피를 들여 4층에 숙소를 짓고 있다. 남편 없는 여자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공부도 가르칠 예정이다. 부모 없는 여자 아이를 데려다 길러, 작년에 결혼 시키기도 했다.

볼 수 있다. 예전에 UP주, 쾰케타, 나그푸르 등지에서 불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곳을 거점으로 모였다가 헤어지는 연락장소로 사용하곤 했었다. 병원에는 주로 부인이 일을 보는데, 환자가 하루에 한명도 안 올 때도 있지만 20명이 올 때도 있다. 간혹 입원 환자들도 있는데 며칠씩 혹은 몇 달씩 입원하기도 한

뿌르에서 불교 책을 한권 가져와 한 달전, 6만 루피 나 들여 1,000권을 인쇄해 나누어 주고 있다.

키르티 원장은 원래는 힌두교도였다가 1985년부터 불자가 되었다.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만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다가 불교에 관한

집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부부가 같이 불교를 믿게 되었다.

키르티 원장은 JTS 등 인도 불교도들에게 나신 한국 불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인도 불교 지원을 당부했다.

인도 불교 전법지원운동 사무국 = 02745-7799

노인자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큐레이터

卍불자 100여명 ‘15일 單期출가’

뿌네시 슈라마네라캠프 참가 새벽예불·독경 등 출가생활 체험



슈라마네라 캠프에 참가한 단기출가자들. 15일간 예불, 독경, 명상, 교리 공부하며 출가생활을 체험했다.

지난 5월 19일 인도 뿌네의 뿌네 대학교 경내에 있는 작은 법당 다당에서는 100명이 넘는 신도들이 흰 옷을 갖추어 입고, 부처님 전에 모여 앉았다. 놀랍게도 이들은 한결같이 식사를 했고, 불전에는 남방불교 스님들이 착용하는 주황색 법복이 쌓여있다. 이들은 이날 모두 단기출가의 의식을 거행하고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부처님께서 앞서 가신 대로 경건한 수행자의 생활을 하겠다는 맹세를 했다. 이날 모인 불자들은 뿌네를 중심

으로 활동하는 부다얀 마하사가(Buddhayan Mahasangha)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슈라마네라 캠프(沙門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슈라마네라는 오랜 옛날, 부처님 시대 이전부터 브라만교가 아닌 타 종교에 귀의한 수행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 뿌네에서의 캠프가 이어 6월에는 슈라마네라 캠프가 솔라푸르(Solapur)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여성 신도들을 위한 5일간의 담마캠프도 준비되어 있다. 인도 뿌네= 이지는 통신원

뉴욕 불교사원聯 새 집행부

회장 휘광스님, 조계종단 산하단체로 활동

미국 뉴욕불교사원연합회(이하 사원련)는 5월 22일 플러싱 사원련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휘광 스님(뉴욕불광선원 주지)을 뉴욕불교사원연합회 회장으로, 부회장에 서천 스님(마하선원), 총무에 정법 스님(뉴욕불광선원)을 선출,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뉴욕불교사원연합회가 ‘대한불교조계종 뉴욕불교

사원연합회’로 바뀜에 따라 조계종 등 모든 종파의 연합체였던 사원련은 앞으로 본국 조계종 종단 소속 단체로 활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이 아닌 9곳의 한인 사찰은 미동중부승가회(회장 도법 스님)로 옮겨 가게 됐다.

회장으로 선출된 휘광 스님은 “봉축 퍼레이드 등 대행사에 종단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코르와트 부근 정글서 9세기때 건립 사원 발견

캄보디아 북부 양코르와트 사원 인근의 정글 속에서 9세기에 세워진 사원이 발견됐다고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5월 15일 밝혔다.

캄보디아 문화부 오을 보른 국가유산국장은 오래전부터 양코르와트

사원 단지 안에 있는 앙코르 톱 사원의 북쪽 10km 지점에 넓이 45m의 프놈 데이 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지난달에야 그 사원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프놈 데이 사원은 연구자들이 1970년대 캄보디아 내전이 발생하기 전부터 발굴을 시도했던 새레 레 암 지역에 있는 10개 사원 중 하나로 12세기까지는 힌두교사원이었다.



달라이 라마가 5월 27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환영행사를 마친한 마오리족 여성과 교류를 베풀는 인사를 하고 있다.

“9·11테러’ 사태 전쟁 대응 지나쳐”

달라이 라마 밝혀

달라이 라마는 지난 5월 19일 호주 멜버른을 방문, 수천여 불

자들이 참석한 대중연설회에서 9.11 빈 라덴에 의한 테러에 대해 꼭 전쟁으로 응수해야 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The AAP’ 지가 5월 21일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날 “여러분이

폭력을 단 한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 폭력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전쟁은 폭력과 그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낳게 되고, 이는 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달라이 라마는 또 테러위협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력보다는 인간 존중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질랜드 토착 마오리족도 5월 27일 호주에서의 9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방문한 달라이 라마를 환영했다. 달라이 라마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오클랜드에서 열린 제2회 ‘세계불교청년포럼’(BYF)에 참석해 발언했다.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불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세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第十五 阿氏多尊者
化土 中
野外法壇 16羅漢像

고불승림방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